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맑음

제목 : 동생 생일

동생 예진의 생일이다. 아침부터 내 동생은 신이 났다.

“오늘은 내 생일이다!”

예진 때문에 우리집이 시끄러워졌다. 저녁이 되자 밥상에는 미역국과 불고기가 있었다.

엄마께서는 생일마다 미역국과 불고기를 꼭 해주신다. 예진은 교회에서도 생일잔치를 해서 선물도 받아왔다. 그리고 집에서도 생일잔치를 하니까 2번이나 한다.

“왜 예진에만 2번해~ 난 1번만 하는데?” 예진에만 2번을 해서 조금 질투가 났다.

“케익 먹자!” 엄마께서 말씀하셨다. 우리는 케익도 맛있게 먹고 재미있게 놀았다. 예진이 말했다.

“내 생일이 빨리왔으면 좋겠다.”

나 “네 생일이 돌아오려면 365일은 더 있어야 될 걸?” 내가 말했다.

우리가족은 모두 웃었다. 나도 내 생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.